

## ‘제주문학-재일 제주문학’과 민족문학의 연동에 관한 탐색

고 명 철\*

### 차 례

1. 문제설정: 국민문학의 경계에 놓인 ‘재일 제주문학’
2. 4·3문학에 대한 통념적 해석을 넘어  
—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
3. 식민지 내부의 타자적 입장을 극복하는 제주여성들  
—원수일의 「이카이노 이야기」
4. 파시즘체제의 은폐된 내적 논리를 드러내기  
—양석일의 「피와 뼈」
5. 맺음말

### 1. 문제설정: 국민문학의 경계에 놓인 ‘재일 제주문학’

영주어문학회의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역문학의 제 문제’이며, 제  
가 맡은 소주제는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입니다. 저의 과문인지 모르겠지  
만, 이 소주제에 대해 그동안 비평계와 학계에서 의미 있는 쟁점이 제기  
되었으며, 그에 따른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sup>1)</sup> 특히 제주처럼 온갖 역사적 상흔으로 점철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

\* 광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널리 알 듯이 지역문학에 대한 폭발적 관심은 1980년대 민족민주운동의 일환으로

특유의 '역사적 응전'은 지역문학과 긴밀히 연동되는바, 이때 지역문학은 지역의 역사적 실천의 하나로서 지역문학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내장하게 됩니다.<sup>2)</sup> 물론, 이 지역문학운동은 중앙의 패권주의를 의식한 채 지역의 특수성을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부각하는, 이른바 서울중심주의를 지역중심주의로 전도시키는 차원의 문학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문학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학은 지역적 유산을 드러내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근대의 문제이고 세계의 문제임을 밝혀내는 기획"<sup>3)</sup>, 달리 말해 "전지구적 시야로 지역을 보고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상호침투적 시각을 견지"<sup>4)</sup>하는 것을 문학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전개된 민족문학운동의 맥락으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역문학운동의 진보적 흐름은 지역문학에 대한 운동적 관심을 촉발시키면서 지역문학의 활력은 민족문학운동의 주요한 동력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지역문학에 대한 단속적 혹은 지속적 관심이 이어졌으며, 지역의 문학적 인프라(연구와 창작 등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지역문학에 대한 의미 있는 비평과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발행되고 있는 문예지들은 지역문학의 문학적 진지인바, 지역문예지들을 통해 지역문학의 현재적 성과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학에 대한 주요 논의의 성과들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집2: 지역의 창조적 위반과 전복적 상상력」, 「실천문학」(2006년 겨울호); 고재환 · 고명철 공저, 「제주인의 혼불」(각, 2006); 구모룡, 「지역문학과 주변부적 시각」(신생, 2005);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제주대출판부, 2005);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청동겨울, 2004); 「특집1: 우리시대의 문학; 지역문인들의 작품세계를 집중조명한다」, 「내일을 여는 작가」(2003년 봄호); 김동윤, 「4·3의 진실과 문학」(각, 2003); 현길언, 「제주문화론」(탐라문화사, 2001);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출판부, 1998); 최완식, 「지방을 보는 눈」,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창작과비평사, 1997); 남송우, 「지역문학의 현황과 과제」, 「생명과 정신의 시학」(전망, 1996) 등.

- 2)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제주의 지역문학운동은 자칫 한국현대사의 미증유의 사건으로 묻히거나, 국가권력의 합법적 행사라는 미명 아래 그 역사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었던 4·3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전위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운동의 역할 모델이라 할 만합니다. 그 뚜렷한 성과로 마침내 제주의 지역문학운동 주체들과 제주인들은 4·3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국가권력의 폭압 속에서 자행된 야만적 폭력이었음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습니다. 2003년 10월 15일 정부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최종 확정했고, 2003년 10월 31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최고 수반으로서 처음으로 국가권력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습니다.
- 3) 구모룡, 「지역문학: 문학적 생성공간으로서의 경계영역」, 앞의 책, 27면.

바로 여기서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의 문제의식은 포개지고, 민족문학의 갱신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간의 민족문학의 갱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없는 것은 아니되, 민족문학(론)의 담론적 수세의 국면 속에서 그 갱신의 노력들 또한 이렇다할 유효성 있는 담론의 생산을 보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 한가지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민족문학을 강하게 배척하는 입장을 제외한) 민족문학의 갱신을 숙고하는 입장들마저, 정작 그 갱신을 위한 민족문학 자체의 쇄신을 위한 어떤 모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민족문학의 갱신의 입장들이 민족문학을 향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수세적 태도에 머무른 채 급변한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족문학의 자기활로에 대한 의연한 태도와 움직임 보여주지 못했다는 판단을 쉽게 저버릴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민족문학의 자기쇄신을 통한 갱신에 값하는 갱신은 민족문학을 에워싼 낯익은 인식과 문제들이 아니라, 민족문학 내부에서 민족문학을 생산적으로 내파(內破)하는 도발적 인식과 문제들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민족문학의 무용성을 주창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민족과 관련한 담론과 실천이 현실적 유효성을 점차 탈각하고 있다고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도리어 복잡다변한 민족문제'들'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한 문제들과 긴밀히 연동되면서 새롭게 배치되며,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세계체제의 하위체제인 분단체제에 놓인 우리의 민족문제'들'을 어떻게 잘 소화하여, 창발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론적 실천' 혹은 '실천적 이론'을 궁리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색의 일환으로 제주문학을 통해 민족문학의 갱신을 위한 활력을 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다소 수사적으로 말씀드린 바, 도발적 인식과 문제들이 요구됩니다. 민족문학의 갱신을 위해서는 물론, 제주문학의 갱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동안 우리에게 통념화된 일국중심의 국민문학의 경계로부터 벗어난 자리에서 민족문학의

갱신과 연동된 제주문학의 갱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한국문학이란 심상지리(心象地理)에 불박힌 것을 넘어 다른 국민문학과 의 경계에 산포되어 있는 문학과 의 왕성한 접촉 과정을 통해 갱신의 또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터입니다.

사실, 오늘 제 발표 내용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재일 제주문학’을 통해 앞서 제기한 민족문학의 갱신을 숙고해보고자 합니다.<sup>5)</sup> 재일 제주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문학이란 심상지리 안에서 재일 제주문학의 특질을 살펴보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일 제주문학을 한국문학이란 제도 영역 안에 배치시키려는 연구 욕망 때문에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재일 제주문학의 경우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이란 두 개의 국민문학 중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전인되기보다 두 국민문학의 경계에 놓여 있다는 구체성을 염두에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민족문학의 갱신에 걸림돌 중 하나인 일국중심의 국민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이, 복잡다변한 민족문제‘들’을 중층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처럼 두 개의 국민문학의 경계에 놓인 또 다른 ‘지역문학-재일 제주문학’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민족문제‘들’을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민족문학의 갱신의 구체성을 보증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제 문제시각은 아직 거칠고 성글기만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문제시각을 정교히 다듬었다기보다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의 상호

5) 이번 제 연구의 문제시각은 2006년 11월 11일에 (사)제주작가회의가 2006년 민족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주최한 문학강연 및 심포지엄(주제: 재일 제주작가와의 만남)에서 시사받은 바 크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 심포지엄의 토론자로서 참석한 저는 심포지엄에 앞서 진행된 김시중 시인의 문학강연을 비롯하여 김창생, 김계자, 원수일, 김길호 등의 ‘재일 제주작가’들이 들려준 문학 얘기와 ‘재일 제주작가’의 문학에 대한 연구 시각을 접하는 가운데 ‘재일 제주문학’을 제주의 지역문학뿐만 아니라 민족문학의 갱신을 위한 어떤 중요한 문제들로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문제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이란 양쪽 개별 국민문학의 경계에 놓인 ‘재일 제주작가’의 문학을 통해 민족문학의 쇄신을 위한 민족문제‘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침투적 시각 속에서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민족문학의 갱신을 위한 모험(도발적 인식과 문제들)의 계기를 통해 ‘지역문과 민족문학’에 대한 학술대회의 소주제의 논의를 맡은 제 역할을 다 하고자 합니다.

## 2. 4.3문학에 대한 통념적 해석을 넘어 —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

최근 제주에서 있었던 ‘재일 제주작가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진행된 문학심포지엄에서 재일 제주작가에 의해 씌어진 4.3문학의 주요 특질이 개괄된 바 있으며, 무엇보다 재일 제주작가들이 거둔 4.3문학의 가치와 성과가 결코 폄하될 수 없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sup>6)</sup> 4.3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그 문학적 형상화 면에서 재일 제주작가들의 4.3문학은 그동안 국내에서 축적시킨 4.3문학의 성과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라는 데 저 역시 큰 이견(異見)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재일 제주작가의 4.3문학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재일 제주작가의 작품을 논의하는 구도가 한국문학(혹은 제주의 지역문학)의 심상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서 부각되는 것은 4.3문학에 대한 기존의 낮은 논의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까요. 가령, 4.3에 대한 역사인식의 투철성, 4.3의 역사적 상흔을 입은 자들의 증언, 4.3의 역사적 왜곡에 대한 고발과 저항 등을 재일 제주작가들의 4.3문학에서 또 다시 읽어낸다는 것은, 4.3문학에 대한 진전된 인식과 담론의 실천이 아닌, 4.3문학을 박물관지화(博物誌化)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4.3문학을 진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 있으며, 4.3문학을 ‘4.3문학’이란 경화된 제도 속으로 고착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4.3문학이 4.3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고 그 역사적 속박으로부터 해방되 고자 했는데, 4.3문학에 대한 통념적이고 상투화된 접근으로 인해 도리

6) 김환기, 「재일 제주작가들의 4.3인식」, 『재일 제주작가와의 만남』 자료집, 2006. 11. 11.

어 4·3문학을 '4·3문학의 제도'로써 구속시키는 잘못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의 지역문학 차원에서조차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학과 연동되어 있는 민족문학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해 (냉정히 얘기한다면) 제주문학 혹은 민족문학의 관점에서 4·3문학의 갱신에 그 어떠한 보탬도 되지 못하는 논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제일 제주문학의 구체적 현실 속에서 씌어진 4·3문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읽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됩니다. 저는 제일 제주작가 김길호의 중편 소설 「이쿠노 아리랑」(제주문화, 2005)<sup>7)</sup>을 그 한 읽기의 사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쿠노 아리랑」에서 눈여겨 본 것은 고을생이란 제주 출신의 여성의 삶에서 4·3의 역사적 광기를 확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광기를 재현하는 4·3의 서사들은 현기영의 단편 「순이삼촌」(1978) 이후 지속적으로 씌어진 4·3문학의 영토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광기를 망각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재현 그 자체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 속의 차이'라는 말이 있듯, 재현 그 자체에 매몰되어서는 4·3문학이 현재진행형으로서 우리에게 타전하는 생산적 언어들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산적 언어들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쿠노 아리랑」은 고을생의 기억을 재현하는 서사로 자족해서는 안 되고, 그 언어절(言語絶)의 기억 너머에서 들려주려는 4·3의 또 다른 언어를 포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을생의 기억의 재현이 일본인 남편도 지금까지 미처 듣지 못했던 사연들을 듣게 하는데, 그것은 “신들린 무당처럼 계속 이어나갔”(27)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을생의 4·3에 대한 재현은 '신들린 무당'의 언어의 속성을 띠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의 국경을 넘은 어떤 경계에서 자유롭게 풀려지는 말하기의 속성을 지닙니다. 오랜 시

7) 본문에서 인용되는 작품은 김길호, 「이쿠노 아리랑」(김길호 작품집 「이쿠노 아리랑」, 제주문화, 2005)의 별쇄본에 근거한 것으로, 별도의 각주 없이 본문에서 인용되는 쪽수만을 (쪽수)로 밝히기로 합니다.

간 동안 침묵의 형식을 견디고 들려주는 이 풀림의 언어는 4·3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는 언어이자, 4·3을 현재화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가볍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고을생의 이 풀림의 언어가 한국 국적을 지닌 고을생의 삶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을생의 일본 남편의 삶의 상처도 동시에 치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 남편은 일본제국주의 아시아 침략의 일환으로 일본군의 만주 주둔시에 조선인과 함께 보초 근무를 하는 도중 조선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인 동료와 탈영을 한 것에 대해 묵인을 했고, 그 혹독한 처벌과 책임으로 인해 남자의 생식력에 큰 결함이 생겼고, 일본 사회에서 심한 박탈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일본인은 4·3의 역사적 참상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온 조선인 고을생과 만나 서로의 기구한 사연들을 교감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기적적으로 둘 사이에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한국인 고을생과 일본인 남자는 각기 자국의 국민국가의 폭압으로부터 피해받은 약소자(弱小者)들인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4·3의 역사적 상처를 견디고 치유하는 고을생의 삶이, 아시아 식민지 경영을 위한 제국의 근대적 폭력 속에서 버림받은 일본인의 삶을 구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을생과 일본인 남편 모두 아시아의 국민국가가 저지른 근대의 야만의 직접적 피해자라는 사실을 상기해보건대, 이 둘이 국경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염원하고 연대하는 구체적 삶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제주문학-재일 제주문학’과 민족문학이 4·3문학을 매개로 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쇄신되어야 하는 가를 시사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 8) ‘약소자’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통합한 개념입니다. 좀더 부연하면, “약소자는 ‘유력자의 권력’을 배분 받기 위해 투쟁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유력자들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내지만, 유력자의 권력을 용망하지는 않는다. 유력자는 지배시스템을 형성하면서 갱신하지만, 약소자는 유력자의 관용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약소자는 1)유력자의 권력을 드러내면서도, 2)유력자의 ‘관용’에 의존하지 않고 체계의 밖에서 체계의 부정성을 증언한다. 이를 통해 3)윤리적 반성과정에서 주체성을 획득하며, 그 윤리성과 주체성에 입각해 4)새로운 연대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현대 정치의 중요한 특징인 ‘상징조작’에 저항한다.”(오창은, 「서론: 지구적 자본주의와 약소자들」, 『실천문학』, 2006년 가을호, 325-326면)

제 4·3문학은 제주의 문제만으로 국지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4·3처럼 국민국가의 근대적 폭력과 야만의 행태악(行態惡)·구조악(構造惡)을 지닌 아시아의 지역 문제들 및 그곳의 약소자들의 문제와 공유하는 문제들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쿠노 아리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을생의 가족사입니다. 고을생은 일본인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조선인 남자와 두 차례 결혼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4·3에 죽임을 당하였고 고을생은 갓난 애를 제주에 남겨둔 채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제일 동포로서 일본에서의 삶의 간난신고(艱難辛苦) 끝에 고을생 사이에 아들 하나를 남겨놓고 사고로 죽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이 비루하고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의 일본인 남자를 만나 아들을 낳고 말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을생의 이 파란만장한 삶에서 세 아들의 존재에 주목하게 됩니다. 제주에 있는 아들은 4·3의 상처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는 존재로서 4·3에 유명을 달리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고을생은 제주에 있는 아들을 그리워하며 제일 동포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주의 아들은 고을생에게 4·3의 참상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생명의 불꽃을 틔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던 아들이 베트남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 아버지가 이승만 정권의 국민국가의 건국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 아들은 박정희 정권의 국민국가의 국가발전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참전한 베트남전쟁<sup>9)</sup>에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즉 고을

9) 최대 5만, 연인원 32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하여 5000여명의 사상자, 1만여명의 부상자를 낳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 1970년대의 유신체제 아래서는 이렇다 할 역사적 인식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대미관계 개선과, 베트남전쟁에 따른 베트남의 경제적 특수, 더욱이 국내외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으로부터 미봉적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베트남에 군을 파병했음을 상기할 때,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 같은 정부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시각은 용납될 수 없는 엄혹한 시기가 바로 1970년대의 유신체제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쟁에 전투병력을 자발적으로 파견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한홍구, 「박정희는 왜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을까」, 강만길 외, 「우리 역사 속 왜」(서해문집, 2002);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생의 제주도 남편과 아들은 모두 한국이란 국민국가의 국민으로 포섭되기를 강요하는(4·3의 참상), 그리고 한국이란 국민국가의 국가발전을 위해 상무정신을 발휘해야만 하는(베트남전쟁) 역사 속에서 소멸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 결혼한 조선인 남편은 재일 동포로서 일본에서 겪는 온갖 민족적 차별과 박해 속에서 생존을 유지하려는 가운데 죽습니다. 일본 사회에 팽배해 있는 (비록 일본은 아시아 침략 전쟁에서 패전국이지만) 아시아의 약소 민족국가에 대한 식민지 경영을 했다는 식민의식은 재일 동포의 삶을 식민의 맥락으로 배치시켰습니다. 그러한 일본 사회에서 재일 동포의 삶은 일본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는 삶도 아니고, 패전국으로서 역사적 과오를 국제사회에 철저히 반성하는 성숙된 국가의 수혜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바, 일본에서 결혼하여 죽은 고을생의 조선인 남편의 죽음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태어난 고을생의 두 아들은 어떤가요. 「이쿠노 아리랑」이 ‘제주문학-재일 제주문학’과 민족문학으로서 새롭게 읽어보아야 할 점은 바로 이 두 아들의 행보가 주목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 문체적 인물은 조선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명석인데, 명석은 북조선을 선택하여 그곳에서 농학도로서의 학문적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sup>10)</sup> 명석의 결단은 분단

---

『한국정치학회보』 30집, 1996년 여름호.

- 10) 북조선을 선택하게 되는 명석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진술 속에 압축돼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어머니의 오해입니다. 전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하고 있으며 큰형님은 지금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에 밀항 오시게 된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조선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면 4·3사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문에 아무리 큰형님이 반공전선에서 전사했다해도 잘못하면 사상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가 북조선에 간다는 건 사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어떤 곳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다는 겁니다, 저는 다행히 농학부를 나왔습니다. 북조선 인민을 위해서라면 건방진 소리입니다만 그들을 위해서 제가 배운 학문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인제는 넘쳐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고국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고국을 사랑한다는 건 그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도 그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62)

체제의 현재적 문제의식을 예각화하려는 작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석의 결단 자체에 대한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명석의 결단을 통해 분단체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에서 존재하는 어떤 관념태가 결코 아니라 엄연히 현실의 구체적 삶의 국면 속에서 작동하는 현실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고을생의 가족사를 듣고 있는 한국인 언어학자 “송교수에게는 제주에서 평양까지 아들 찾아 남북 삼천리를 순례하는 순례자”(64) 고을생의 삶 자체가 분단체제를 온몸으로 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64)로 인식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고을생의 가족사를 일본인 남편 사이에 태어난 요시오는 역사선생으로서 한국(혹은 제주)가 아닌 일본에서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보입니다. 요시오의 다짐이야말로 ‘묘목인생’(40)과 같은 삶을 살아온 고을생과 같은 재일 제주인이 “강한 생명력으로 어디에서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65) 생태를 상투화된 기억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적 의미로서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길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재일 제주작가 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은 고을생의 4·3을, 기억이란 형식을 통해 재현하되, 지금까지 낯익은 4·3의 문제틀로 포착하는 게 아니라, 일국중심의 민족문학(한국문학 혹은 제주문학)의 심상지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지점에서 아시아의 평화적 가치와 연대, 그리고 분단체제의 새로운 문제의식을 중층적으로 포개어 읽게 함으로써 ‘제주문학-재일 제주문학’과 민족문학의 갱신의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는 독서지평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 3. 식민지 내부의 타자적 입장을 극복하는 제주여성들 —원수일의 『이카이노 이야기』

앞서 김길호의 「이쿠노 아리랑」에서 주된 인물은 고을생이란 제주여성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여성들은 제주여성 특유의 억척스러운

과 자존성(自尊性)<sup>11)</sup>을 통해 재일 동포로서 겪는 온갖 삶의 문제들에 맞서왔습니다. 재일 제주작가 원수일은 그의 소설집 『이카이노 이야기』(김정혜 · 박정이 공역, 새미, 2006; 작품을 본문에서 인용하게 될 경우 각주 없이 본문에서 쪽수만을 밝힙니다.)에서 재일 제주여성들의 삶을 점묘해내고 있습니다.<sup>12)</sup>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들 중 「귀향」, 「재생」은 재일 제주여성들의 삶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는 수작(秀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귀향」을 주목해보겠습니다. 「귀향」에서 순애는 “운 좋게 50여년 만에 제주도 성묘단에 참가할 수 있”(99)다는 설레임으로 고향에 갖다주기 위해 “암시장 물건을 사는데 여념이 없”(99)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온 고향 방문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그만 취소되고 맙니다. 순애의 허탈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인데, 여기에는 고향을 방문해서 꼭 해야 할 주요한 목적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순애네의 족보를 고향에서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순애는 50여년 동안 일본이란 국민국가에서 말 그대로 “나름대로의 문법과 상식을 동원하여 바짝바짝 밀어붙이는 1세들의 강인함”(105)으로 버텨왔으며, 그녀의 의식의 한 켠에서는 그녀의 가족의 가계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욕망이 뿌리를 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하여 순애는 그녀

11) 제주여성들의 삶의 억척스러움과 자존성에 대해서는 제주 민중들의 일상 속에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각종 속담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 속담에 등장하는 제주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속담과 달리 제주여성들의 자존성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재환,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2001, 179-183면 및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참조.

12) 『이카이노 이야기』는 재일 제주작가 원수일의 첫 창작집으로 1987년 일본에서 발간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온 여자들’이란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후 원수일은 『이카이노 이야기』 한국어판을 내면서 “내게 있어서 출발점은 김치냄새를 체험한 어머니들의 제주도 방언에 일본어가 뒤섞인 거리, 일본에서도 이국이라 할 수 있는 이카이노다.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타향살이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당당히 살아온 어머니들의 삶은 내 창작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작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서 파악할 수 있듯,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한 서사는 바로 재일 제주여성들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의 둘째 아들 종일과 갈등의 관계에 놓입니다. 이미 그녀의 장남은 제일 동포 2세로서 일본 사회에 적응하려는데서 짐작할 수 있듯, 종일 역시 형 처럼 일본에 적응하여 제일 동포로서의 삶이 아닌, 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종일에게는 순애가 전근대적 유산인 족보를 만들고 싶어하는 참뜻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게 종일의 입장일 터입니다.

“그거 내사 잘 모르겠습니다. 호적 없는 게 내 잘못도 아니고 외국인등록증 있으니깐 그것이 호적 대신 안 합니까?”

“아이고 이 무식한 놈아, 호적은 우리나라 거고, 등록증은 일본거 아이기”

“외국인등록증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등록증만 있으면 내가 누군지 정도는 다 안다 아닙니까?”

“누군가는 알지만도 혈통은 모르는 기다”

“내만 엄연히 살아있으면 안 됩니까?”

“옛날부터 호적 없으면 인간 이하의 취급 받았다”

“나라가 갈라져 있어서 하는 수 없다 아인고, 어머니. 언젠가 통일이 되면 호적정도야 금새 만들 수 안 있겠습니까?”

“말만, 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입만 살아있던 인간들 모여서 내일이라도 통일될 것처럼 말하더니 이게 머꼬, 통일이 되기는커녕 전쟁 안 했다. 헛하. ‘이번만은 이번만은’이란 노랫말도 있지만 아직도 두동강이 난 채로 있다 아이기. 너거 아버지도 그만두라 했는데도 일제시대 때 쓸데없이 호적을 원산으로 올렸대 아이기”

“어머니도 참! 50년 만에 제주도에 가면서 쓸데없는 생각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땡겨오시는 데만 신경 쓰이소”

“저 세상 가기 전에 할 일 다 해놓고 가야 안 되겠나. 이래 가꼬 죽으면 눈 못 감는다. 저 세상 가서도 안 편하다. 헛하하”

순애는 날렵히 코를 잡고는 튀어나온 광대뼈를 문질렀다.(109-110)<sup>13)</sup>

13) 『이카이노 이야기』의 한국어번역판에서는 경상도 사투리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오사카 지역의 일본식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로 의도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소설집의 ‘일러두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순애가 족보를 고집하는 이유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안 받기 위해서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중층적으로 포개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애는 종일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족보가 일본 사회에서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순애는 일본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일본 사회에서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란 제도 자체가 웅변해주듯, 재일 동포들은 형식적으로 일본 사회의 구성원일뿐이지, 일본이란 국민국가가 그들을 자연스레 호명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의 식민으로서 국민국가의 효율적 통치 질서 아래 잘 관리 감독되어야 할 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일본이란 국민국가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소외받거나 추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외국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순애는 이러한 외국인등록증에 각인된 재일 동포들에 대한 내부 식민의 지배를 일본의 오랜 구체적 생활경험으로부터 체득하고 있기에,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근대의 제도적 문서가 재일 동포의 인간다운 삶을 보증해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애는 족보란 전근대적 문서를 통해 재일 동포들의 정신적 근원이나마 복원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내부 식민으로서 타자의 삶이 아닌 조선인으로서의 주체적 삶을 지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고향 방문단의 좌절로 인해 성사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분단이란 엄연한 현실 속에서 북한에 있는 호적을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애의 족보 만들기는 일본 사회에서 타자로 관리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인 터에, 그 일이 분단시대의 현실적 장벽에 막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재일 동포가 겪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름대로 맞서는 제주 여성의 삶은 「재생」의 극적인 결말에서 삶의 강건한 내력을 소유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유의 삶의 낙천성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에 등장하는 김영춘이란 제주 여성 역시 “‘오기’라는 것이 영춘을 간신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는 밧줄”(172) 삼아, 일본에서의 박복한

삶을 견디며 억척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김영춘은 일본에서의 고달픈 삶에 못이겨 자살을 실행하였다가 다행스럽게도 또 다른 제주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재생」의 결미에서 작가 원수일은 자살을 시도한 제주여성과 그 여성의 목숨을 구한 제주여성들 사이에 나는, 죽음을 넘어 신생(新生)의 삶을 꿈꾸는 낙천적 희망의 언어를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지옥 입구에서 되돌아온 영춘은 귀신이 떨어진 듯이 맑은 얼굴을 하고 있다. 더불어 가슴에 단단히 묻어둔 것이 반짝이는 눈에 들러났다.

“내도 집 나와 장사 한번 해 볼라 카는데”

“먼 장사들?” 복순이 묻는다.

“곱창집 한번 해볼라꼬”

“생각 잘 했구마” 만족한 듯이 인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전의 내는 죽었다. 지금의 내는 곱창집 할라꼬 다시 태어났데이.”

(중략)

영춘은 맑은 눈에 미소를 띄우며

“앞으로 곱창집이 잘 되면 아지매들 불러 잔치 벌리구마”라고 한다.

“고맙수다. 그러면 먼저 그 축하주를”

복순은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먼저 술을 다음에 콩나물, 김치, 명태, 육류 내장, 초장 등을 준비했다.

“아이고 얼씨구절씨구 좋다!”

인숙은 흥에 겨워 춤을 출 정도로 들떠있었다.

준비다 다 되자 인숙이 건배 제창을 한다.

“한번 잘 살아 보구로, 건배!”

영춘은 행운을 불러들일 기세로 단숨에 술을 들이킨다.(239-240)

재일 제주작가 원수일의 작품을 통해 재일 동포문학은 재일 제주여성의 주체적 시각에 용해되어 있는, 일본 사회 내부의 식민지 타자의 입장을 극복하기 위한 강인하고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sup>14)</sup>

14) 재일한국인 문학 연구자에 의하면, “원수일은 『이카이노 이야기』에서 작가 자신

이러한 재일 제주여성들의 문학적 응전은 ‘제주문학-재일 제주문학’에서 그동안 소홀히 간주했던 제주여성의 주체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 문제의식을 재구성함으로써 민족문학의 갱신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반식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하위주체들의 문학적 응전에 대한 탐구의 계기를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4. 파시즘체제의 은폐된 내적 논리를 드러내기 —양석일의 「피와 뼈」

사실, 공고롭게도 지금까지 이 글에서 검토한 재일 제주작가들의 작품의 경우 제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서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여성 특유의 억척스럽고 낙천적인 삶의 형식이 일본 사회의 온갖 민족적 차별과 모멸을 견디는 항체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재일 동포의 삶이 이렇게 세계의 부정성에 대한 약소자의 윤리적 감각과 인식에 의해서만 부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일 제주작가 양석일의 경우 세계의 부정성에 대한 문학적 응전은 전혀 다른 입장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문학은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적응하여 살고자 했던 재일 동포들의 삶의 그늘에 드리워져 있는 아픈 상처들을 가감없이 솔직히 드러내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일 동포 1세대들이 “미화해온 동포사회의 치부를 들추어내고 가정에 있어서 추악한 아버지를 그려내어 고발”<sup>15)</sup>합니다. 그 대표적 작품이 장편소설 「피와 뼈」(김석희

---

의 유년체험이 묻어나는 이카이노를 배경으로 억척스럽게 삶을 헤쳐나가는 재일 1세의 제주도 여인들을 특유의 유머를 곁들여 묘사함으로써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였다. 고단한 삶의 연속적인 고비와 역경에 부딪히면서도 꺾일 줄 모르는 삶의 본능적인 에너지와 생명력을 잃지 않는 끈끈한 모습은 가정을 꾸려가는 가장의 역할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유숙자, 「오사카 이카이노의 재일한국인 문학」, 「재일 한국인 문학연구」, 월인, 2000, 230면)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 이한창, 「체제와 가치에 도전한 양석일의 작품세계」, 한국일본어학회 「일본어 문학」 T3집, 2002, 501면.

역, 자유포럼, 1998; 작품을 본문에서 인용하게 될 경우 각주 없이 본문에서 쪽수만을 밝힙니다.)입니다.<sup>16)</sup>

이미 『피와 뼈』에 대해서는 재일 동포문학의 차원<sup>17)</sup>에서 혹은 재일 제주인의 문학 차원<sup>18)</sup>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이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제주문학-재일 제주문학’과 민족문학이 연동된 가운데 상호침투적 시각 속에서 지역문학(혹은 제주문학)과 민족문학의 갱신이란 맥락에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피와 뼈』에서 가장 개성이 두드러진 인물은 제주출신의 김준평일 것입니다. 작가 양석일에 의해 창조된 김준평은 작품 곳곳에서 거듭 불리워지듯, 한마디로 말하자면 ‘괴물’ 그 자체입니다. 그는 “야생 맹수와 똑같은 본능”(1권, 33)을 갖고 있으며, “무엇을 하든 혼자”(1권, 36)이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의식하지 않”으며(1권, 104), “스스로 떠맡고 나선 싸움은 어디까지나 완력으로 해결”(1권, 81)해야만 하는, “폭력이 모든 것을 말해주”(1권, 108)는, 가히 파천황(破天荒)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 어떠한 폭력도 김준평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김준평에게 재일 동포라는 약소자의 처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도 집안의 형편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을 그의 폭력 속에서 가둬놓아 버립니다. 그에게 아내는 자신의 동물적 성욕을 발산하는 한갓 성욕의 대상에 불과하며, 자식들은 삶의 악다구니 속에서 던져진 채 약육강식·적자생존의 냉엄한 정글의 법칙에 따라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말하자면 김준평은 아버지로서나 남편으로서

16) 양석일의 『피와 뼈』는 1998년 일본에서 출판된 장편소설로, ‘아마모토 슈고로상’을 수상하였고, ‘나오기상’ 후보작으로도 선정되었으며, 영화화되어 흥행 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는 영화 ‘피와 뼈’(최양일 감독, 2004 제작)가 2005년에 개봉되어 양석일 문학의 매니아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17) 이한창, 『양석일의 다양한 문학세계』, 한일민족문제학회 『한일민족문제연구』 9집, 2005; 이한창, 『체제와 가치에 도전한 양석일의 작품세계』, 한국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T3집, 2002.

18) 김영화, 『재일 제주인의 세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T9집, 1998; 강영기, 『제주, 재일 제주인, 그리고 문학』, 『제주작가』 2005년 하반기호.



나 그 어떠한 역할도 보증해내지 못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주의적인 폭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김준평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일본 사회의 최하층인 재일 동포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김준평이 유독 자식들에게 집착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자신의 ‘빠’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자식들이 김준평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준평은 자식들에게 김준평의 ‘빠’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김준평 자신이 아버지다운 아버지의 위엄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무)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김준평은 그토록 집안을 돌보지 않다가도 아들을 출산하면, 아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 조선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쿠노에 가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조선 무가(巫歌)에 ‘피는 어머니한테 받고 빠는 아버지한테 받는다’는 구절이 있다. 조선의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너는 내 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가부장제도를 상징하는 말이었다. 피도 역시 빠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땅에 묻힌 사람의 피와 살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빠만은 남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만, 빠는 피보다 진하다. 입밖에 내어 말은 안하지만, 유학자를 찾아가 이름을 받아온 것이 아들에 대한 김준평의 애정 표현이었다.(2권, 31-32)

그런데 저는 『피와 빠』에서 보이는 김준평의 가부장적 권력의 유지가 예상롭지 않게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애지중지하면서도 김준평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신의 빠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아들과 대척점에 스스로를 놓습니다. 김준평과 아들은 부자지간이기보다 서로 앙숙인 입장에 있으며, 그들은 심지어 서로에 대한 살의(殺意)를 드러내며, 칼부림마저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김준평이 아들을 제압합니다.

저는 김준평이란 인물을 탈역사적 맥락에서 읽을 경우 한갓 피기스러운 존재로서밖에 인식되지 않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읽을 경우 김준평이

란 인물은 20세기 전반기부터 아시아 침략을 감행한 일본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식민지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파시즘체제를 내면화시킨 것으로 파악해봅니다. 1930년대 중반 이후 더욱 노골화된 일본의 파시즘체제는 일체의 타자들을 제국의 식민화의 논리로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가운데 타자의 타자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식민의 입장에 있는 주체들이 파시즘체제의 강요된 식민화의 논리를 내면화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피식민자들은 적극적으로 파시즘체제에 협력을 하게 되고, 피식민자들 스스로가 파시즘체제와 동일성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곧 파시스트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패전국으로 전락하기 전까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식민지 경영의 주요한 지배통치 방식이었습니다.<sup>19)</sup>

저는 김준평이란 인물에게서 보이는 파천황 같은 위압적 실체는 김준평이 젊었을 적 삶을 살아간 일본의 파시즘체제와 상동성을 갖는 것, 즉 김준평은 일본제국주의 파시즘체제의 내적 논리가 용해되어 있는 인물로 읽힌다고 할까요. 파시즘체제의 지배통치 방식이 그렇듯, 제국의 모든 통치 아래 있는 피식민의 대상들은 제국 통치의 원활을 위한 사물화의 위치로 전락되기 때문에 제국은 자신이 마음 내키는 대로 그 사물을 절단하고, 배치하고, 폐기처분하고, 접합함으로써 오직 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만 고심을 합니다. 김준평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러한 제국의 존재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일 제주작가 양석일이 『피와 뼈』의 김준평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전언은 아시아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일본제국의 파시즘체제의 내적 논리의 양상을 적나라하게 들추어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9) 2006년 11월 24일-25일에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산하 민족문학연구소가 주최한 제2회 식민주의와 문학 국제심포지엄(주제: 일제 점령하의 동아시아 문학)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식민지 경영의 통치방식은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아주 치밀히 진행되었다는 데 대해 식민지 문학을 연구하는 동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적 논리의 양상은 일본 사회의 밑자리에 침전되어 있는바, 소설 속에서 김준평이 1980년대까지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그 내적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일본 사회가 얼마나 이 파시즘체제의 통치 방식과 확연히 절연할 수 없는지, 그렇기 때문에 『피와 뼈』가 일본 사회의 내적 논리로서 그 파시즘체제가 얼마나 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예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작인지 그 문제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성이 돋보이는 것은, 작품의 결미에서 김준평과 그의 아들 성한이가 끝내 화해의 계기를 갖지 못하게 되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성한이 입장에서 볼 때, 김준평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적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는, 혈육은 혈육이되, 그 혈육의 인연을 일부러 이어갈 수 없는, 그리하여 실낱 같은 부자지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비운의 운명에 속박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한이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혈육이라는 인연이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쇠사슬처럼 연면히 이어지고 있는 혈육이라는 끈. 이 불가사의한 인연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쨌거나 몸의 일부를 나누어 가진 유사성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때 왜 좀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오사카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을 것이다. “어이, 자네, 자네……”하고 불러세우는 김준평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떠나버린 성한이는 자기가 냉혹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김준평을 내버려둔 채 돌보지 않은 것은 옳은 일이었는가. 아니면 복수였던가.(3권, 289)

어떻게 보면, 김준평의 아들 성한이마저 스스로를 ‘냉혹한 인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김준평의 폭력 속에서 그 폭력에 갇힌 파시즘체제의 내적 논리를 재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요컨대 재일 제주작가 양석일의 『피와 뼈』는 ‘제주문학-재일 제주문학’을 통해 식민지 파시즘체제의 내적 논리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곧 20세기 전반기를 암울하게 보냈던 아시아의 피식민의 역사를 예각적으로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식민주의를 실천하

기 위한 민족문학의 갱신의 맥락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아시아 식민지 경영에 몰두한 일본 사회의 내부에서 그 식민의 주요한 파시즘체제의 내적 논리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는 양석일의 문학적 성과야말로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에서 새롭게 겨안아야 할 문학적 자산인 것입니다.

## 5. 맺음말

애초 이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저는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이란 소주제를 작게는 지역문학운동과 넓게는 민족문학운동의 차원으로 동시에 인식하고, 지역문학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는 민족문학의 상호침투적 시각 속에서 이렇다할 진전없이 제 자리에서 공전(空轉)하고 있는 듯한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을 갱신 시키기 위한 새로운 인식과 문제들의 설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재일 제주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재일 제주문학’을 통해 민족문학의 갱신을 위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검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더는 일국중심의 폐쇄적 민족문학, 즉 개별 국민문학(과 연동된 지역문학)의 심상지리 안에서 모색되는 민족문학의 갱신의 길은 요원해보입니다. 개별 국민문학의 심상지리의 경계에 구속되지 않는 좀더 역동적인 인식적 시야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론적 실천 혹은 실천적 이론으로 궁리해내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의 이번 문제시각은 저의 이 같은 이후 작업을 위한 첫 걸음마를 떤 데 불과합니다. 좀더 폭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재일 제주작가들의 문학적 성취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재일 제주문학’이 거둔 성과를 지역문학으로서의 제주문학과 프랙탈 관계에 있는 민족문학과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학과 민족문학’의 갱신에 값하는 갱신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는 ‘평화의 섬’으로서 ‘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만큼 배타적 민족주의와 협소한 지역중심주의에

서 벗어나, 일체의 식민주의를 부정하는 반식민주의 평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문학'의 원대한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의 진전된 연구 시각과 좀더 세밀한 작품 읽기를 기약하며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 핵심어: 재일제주문학, 지역문학, 민족문학, 제주문학, 제주여성

<Abstract>

### Consideration on Connection with 'Jeju Literature-Jeju Literature Residing in Japan'

Ko Myeong-cheol

At this point, the self renewal of national literature is not a familiar recognition and a frame of a problem, but is required a provocative understanding and a frame of a problem which implodes productively national literature from inner of it. It does not insist on the useless of national literature. Even though people said that the discussion and practice related to nation get rid of realistic usefulness, our reality can not ignore the fact that is situated in the various and complicated national problems. The problem is how we assimilate well our national problems, which are newly arranged and structured and are put in the system of division which is a subsystem of a world system, and how we solve them creatively into 'theoretical practice' or 'practical theory'.

As a way of those seeking, I would like to get the vitality for

renewal of national literature through Jeju literature. Escaping from the place of boundary of national literature center on a nation which is accepted for a long time, renewal of Jeju literature connected to renewal of national literature should be considered. So to speak, crossing a Korean literature, which is fixation on an image geographical feature, the other way through the active contact process with other literature which scatters in the boundary of other national literature could be sought.

Therefore I have considered the renewal of national literature raised before through 'Jeju literature residing in Japan'. The thing that I want to emphasize from having had an interest in Jeju literature residing in Japan have not considered the features of Jeju literature residing in Japan within an image geographical feature of a Korean literature. In the case of Jeju literature residing in Japan,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e concreteness situated in the boundary of two national literatures rather than drawing unilaterally any one side. Considering not free from criticism which is not recognized seriously various and complicated national problems, an obstacle for the renewal of national literature is a national literature as a people literature center on a nation. The national problems raised newly through another 'local literature-Jeju literature residing in Japan' which is put the boundary of two people literatures would be solved creatively and some possibility which guarantees the concreteness of renewal of national literature could be found.

- Keywords: Jeju literature residing in Japan, local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Jeju literature, Jeju women